

‘일대일 제자 양육’을 통한 평신도 신앙 성장에 대한 연구
: 충일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류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조성환

드류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3년 5월

Copyright© 2023 Sung Hwan Cho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STUDY ON THE GROWTH OF LAITY FAITH THROUGH “ONE-ON-ONE DISCIPLING”

: FOCUSING ON THE CASE OF CHUNGIL CHURCH

Sung Hwan Cho

Chung il Church, Chungju, Korea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growth of lay faith through one-on-one student rearing. Misconceptions about faith growth and maturity are scattered in the Korean church. Most of them are the number of services, the amount of donations, and the number of services. All can be written in numbers. However, although the number has increased a lot, the credibility of the Korean church is gradually decreasing.

In this reality, many believers experienced the growth of faith through one-on-one raising of disciples I experienced. Along with the growth of faith, worship, donations, and service naturally increased, and God was experienced together in life, and the confidence of salvation was also clearly established.

So, we will look at what one-on-one is through years of one-on-one student rearing at Chungil Church, a one-on-one student rearing festival program that compensates for one-on-one shortcomings, one-on-one e-mailing to meditate on one-on-one student rearing, and a testament to change.

We hope that this paper will help Korean church members who are becoming religious to mature and grow their faith.

국문초록

‘일대일 제자 양육’을 통한 평신도 신앙 성장에 대한 연구

: 충일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조성환

충일교회, 충주, 대한민국

본 연구는 일대일 제자 양육을 통한 평신도 신앙 성장에 대한 연구이다. 신앙 성장과 성숙에 대한 오해들이 한국교회에 산재되어 있다. 대부분 예배 횟수, 헌금의 양, 봉사의 숫자 등이다. 모두 숫자로 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숫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점점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필자가 경험한 일대일 제자 양육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였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동반되어 자연스럽게 예배와 헌금, 봉사 또한 늘어났으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구원의 확신 또한 명확하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충일교회에서 수년 간 진행된 일대일 제자 양육 사례를 통하여 일대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일대일의 단점을 보완한 일대일 제자 양육 페스티벌 프로그램과 일대일 제자 양육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일대일 메일링, 변화의 모습들을 담은 간증문을 통하여 일대일이 주는 큰 유익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이 종교화 되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그림 목차.....	vii
감사의 글.....	viii
I. 서론.....	1
1. 연구 동기와 목적	1
2. 연구 방법과 범위	6
II.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한 이해.....	7
1. 일대일 제자양육이란?	7
2. 일대일 제자양육의 성서적·신학적 근거.....	8
1) 성서적 근거.....	8
2) 신학적 근거.....	11
III. 충일교회 일대일 제자양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3
1. 충일교회 양육시스템	13
2. 충일교회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	15
3. 충일교회 일대일 제자양육 메일링(16주 과정)	22
4. 충일교회 일대일 제자양육 페스티벌.....	54
IV. 충일교회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자 간증문.....	65
1. 동반자 과정 수료자 간증문.....	65
2. 양육자 과정 수료자 간증.....	79
V. 결론.....	83
1. 요약 및 평가.....	83
2. 결론 및 제언.....	84

참고 문헌.....	88
------------	----

그림 목차

<그림 1>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3
<그림 2> 충일교회 양육시스템.....	13
<그림 3> 안녕하세요.....	15
<그림 4> 안녕하세요 설명.....	16
<그림 5> 2017 일대일 제자양육 페스티벌 계획안.....	55
<그림 6> 2017 일대일 제자양육 페스티벌 타임테이블.....	56
<그림 7>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현황	61
<그림 8>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 현황.....	62
<그림 9> 일대일 제자양육 가계도 1.....	63
<그림 10> 일대일 제자양육 가계도 2.....	63
<그림 11> 일대일 제자양육 가계도 3.....	64
<그림 12> 일대일 제자양육 가계도 4.....	64

감사의 글

박사과정은 꿈 꿀 수도 없었는데, 은사이신 충일교회 박상현 목사님의 권면과 조언을 통하여 드류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옮긴 사역지에서 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신 박재필 목사님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 학기를 두고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였지만 김영래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지도해 주셔서 다시 용기를 내어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고, 매 학기마다 귀한 가르침을 주신 조병호 박사님과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충일교회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시고, 충일교회 성도님들께서 십시일반 도움을 주셔서 학비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횡성에서 일하시면서도 언제나 부족한 사위의 사역과 박사과정을 염려해 주시며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목사 아들이 나온 것도 자랑스러운데 박사 아들까지 나왔다며 감격에 감격을 하고 늘 기도로 지원해 주시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어머니 류순희 여사님. 그 어떤 제자 훈련도 받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제자입니다. 제자의 본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가은, 조한서, 조준서, 조민서. 사랑하는 네 자녀들, 아빠와 함께 하고 싶고, 놀고 싶지만 참아주고 인내해 주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나마 생겼습니다. 기다려 준 네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사역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는 현실인데, 사랑하는 아내의 전적인

헌신을 통해 사역 뿐 아니라 박사과정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며, 박사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5월에

조성환

I. 서론

1. 연구 동기와 목적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지표는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 대부분 예배드린 횟수, 기도하는 시간, 헌금을 드린 금액, 봉사하고 있는 부서 등을 지표로 삼을 수 있겠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회만큼 많은 예배 시간, 기도회의 이름, 헌금의 양, 봉사부서가 많은 국가와 교회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다.

요즘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말과 함께 제자양육, 제자양성,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흔히 접할 수 있다. 각 교회에서는 교회마다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자양육 및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교회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다.¹

그런데 중요한 착각을 하는 것이 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도의 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교훈이다. 자신이 성숙한 신자냐 아니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 일단 예수를 믿고 무리 가운데서 앞으로 나온 사람이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² 그러므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새삼스럽게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받아야 한다.³

¹ 김미희, “학원 복음화와 제자양육에 따른 기독교 교사의 자질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29.

²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4), 137.

³ Ibid., 138.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받아야 한다. 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사고의 전환 없이 제자가 되기 싫어 많은 성도가 교회는 다니지만, 제자훈련을 받지 않는다. 그 결과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볼 수 없는 것이다.

코로나19, 한국 교회의 질적 위기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한국 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는 두 번째 이유인 질적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자. 필자가 염려하는 질적 저하는 크게 3가지다. 첫째, 타협하는 설교다. 둘째, 도덕 수준 하락이다. 셋째, 하나님, 인간, 세상에 관한 새로운 질문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통찰의 부재이다.⁴

장로회신학대학교가 지앤컴리서치와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복수 응답), 비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바라는 모습 1위는 윤리성(41.8%)이었다. 그다음으로 공익성(37%), 배려심(34.7%), 투명성(34.6%), 절제성(25.5%)을 요구했다.⁵

성도로서 누구보다 도덕적이며, 윤리성이 뛰어 나야 하고, 배려심과 투명성, 절제 등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어야하는데 그렇지 않다.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회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지표를 잘못 삼고 있기 때문이다. 숫자로 매겨지는 것들로 인해 성도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다. 종교의 순기능도 분명 존재하지만, 종교계의 부정부패와 이기주의는 코로나 이후 국민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언론에 개신교의 각종 비도덕적이고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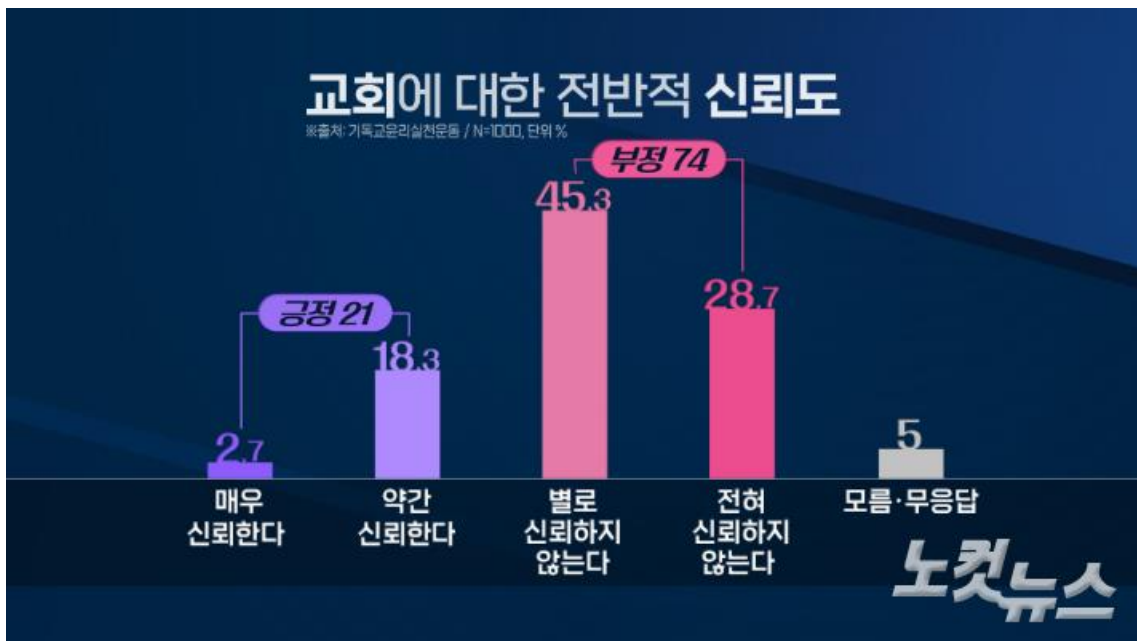
⁴ 최윤식, 최현식. 『빅체인지 한국 교회』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1), 337.

⁵ Ibid., 342.

꾸준히 공개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는 집단감염을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들이 추가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⁶

아래의 그림을 보면 얼마나 한국교회가 세상에 신뢰를 잃었는지 알 수 있다.

<그림 1> 교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⁷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4%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 기독교의 위치가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⁶ 정성진 외, 『격차의 시대 격이 있는 교회와 목회』 (서울: (재)기독교 선교햇불재단, 2022), 43.

⁷ <https://www.nocutnews.co.kr/news/5896740>, [2023년 3월 5일 최종접속].

그것은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 성숙과 성장의 지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숫자로 표기되는 예배, 기도, 헌금, 봉사부서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한국 교회는 공간, 사람, 재정을 갖췄다. 지금까지 이것들을 활용해 목회를 했다면 새로운 방식은 교회만의 독특한 콘텐츠, 세상과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갖추는 것이어야 한다.⁸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세상과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는 콘텐츠이다. 과거에는 성도가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 세상이 많이 실망하였다면 이제는 성장과 성숙한 성도라는 콘텐츠를 통해 교회의 거룩하고, 건강하며, 상식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동체 모임 조차 힘들어졌다.

한국교회에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하나의 결정적 타격이었다. 교회는 마치 전염병의 온상지인 것처럼 알려졌다. 무엇보다 초기 신천지발 감염의 충격은 온 국민에게 종교는 전염병 시기에 도움보다 해가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특히 개신교는 정부의 방침에 대척되는 지점에 서는 모습을 보임으로 비합리적인 이미지를 덧입었다. 무엇보다 종교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집단으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가져왔다.⁹

한국사회의 비대면 접촉,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집합 금지명령, 모임에 대한 행정명령과 같은 사회적 제재가 교회 공동체까지 강한 파장을 미쳤고, 이제 온라인상 종교 행위는 매우 자연스러워졌으며 이전과 같은 형태의 신앙생활과 교회

⁸ 김도인 외, 『목회트렌드 2023』 (서울: 목회트렌드연구소, 2022) 17.

⁹ 조성돈, “위기에 마주한 한국교회의 전환,” 『생명과 말씀』, 30 (2021), 229.

생활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대그룹의 예배드리기는 기독교의 과거 역사로 흘러가고 있으며, 한국교회는 그나마 소그룹 사역을 교회 침체에 대한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삼고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였는데 이제는 소그룹 모임조차도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¹⁰

‘평균’이 사라지고 있다. 정확히 표현하면 집단을 대표하는 평균값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대푯값으로서 평균이 의미 있으려면 해당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뤄야 하는데,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분포의 정규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¹¹ 평균 실종 트렌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엄중하다 평균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무난한 상품, 평범한 삶, 보통의 의견, 정상의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 정규분포로 상징되는 기존의 대중 시장이 흔들리며, 대체 불가능한 탁월함, 차별화, 다양성이 필요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¹²

평균실종으로 인해 다수의 강의는 매력을 잃어버렸다.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은 맞춤 양육이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일대일 제자양육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3년의 시간 동안 교회 집합이 힘들어졌다. 교회 프로그램 진행도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진행된 사역이 일대일 제자 양육이었다.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쉬지 않고 사역을 진행했다. 왜냐하면 일대일로 만나기 때문이다.

이 일대일 제자 양육을 통하여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에

¹⁰ 김성진, 유연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목회 본질 회복을 위한 멘토링 목회 연구,” 『신학과 실천』, (2020.11), 718.

¹¹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23』(서울: 미래의 창, 2022) 143.

¹² Ibid., 143.

대한 확신과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없이 맹목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하여 일대일 제자양육의 장점을 설명하고 변화된 성도의 삶의 이야기를 논증으로 삼아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한 성경적·신학적 설명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충일교회 일대일 제자양육에 관한 사례 제시 및 동반자 양육자 과정을 마친 분들의 간증문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과 삶의 변화의 모습을 보려고 한다.

본 연구는 충일교회(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일대일 제자양육으로 범위를 정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양육자에 따라 양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동반자의 수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진행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본 논문의 제한적인 대상은 충일교회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II.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한 이해

1. 일대일 제자양육이란?

제자의 사전적 의미로는 한글 사전에서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받거나 혹은 받은 사람, 학생, 따르는 자’ 라고 되어 있다. 또는 일반적인 제자란 말은 ‘주인의 일이나 인격에 흥미를 가지고 주인을 따르면서 주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동반자’ 를 뜻한다. 제자라는 말이 학문 따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徒(도) 弟(제), 門(문) 徒(도) 등으로 되어 있다.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제자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자, 또는 배우는 자로서 특히 자기 스승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파하는 일을 돕고자 하는 사람’ 이라고 정의했다. 영어 사전에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한 사람, 그리스도의 신자, 제자, 문하생, 문인, 신봉자, 신도’ 등으로 표현한다. 어원적 의미로 제자란 단어의 disciple은 원래 dis-cipere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to take apart completely’ 라는 의미이다. 즉 ‘어떤 것을 완전하게 분해하여 이해한다.’ 는 의미이다.¹³

예수님의 삶과 말씀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따르고, 그 정신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온누리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에 처음으로 일대일 제자 양육이 소개되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삶의 나눔과 섬김의 본을 통해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리라고

¹³ 조병준, “전통교회의 제자양육 사역이해와 교회성장방안,”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13), 38.

확신하여 1986년 9월 11일 3개의 일대일 지도자 반이 개설되므로 시작되었다.¹⁴

일대일 제자양육이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양육자와 동반자가 일대일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체로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성도의 관계를 맺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동반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¹⁵

일대일 동반자 과정은 16주 과정이다.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일대일 양육자 과정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 또한 양육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다시 일대일 동반자 과정에서 동반자를 양육할 수 있다.

2. 일대일 제자양육의 성서적 · 신학적 근거

1) 성서적 근거

제자양육의 성경적 근거를 말하기 전에 필자는 제자양육과 제자훈련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려 한다. 토마스 그린(Thomas Green)이라는 학자는 “가르침이 ‘행위를 가꾸는 것’ 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신념을 가꾸는 것’ 이라고 주장을 했다.” 이 말에서 훈련과 양육의 차이점을 읽을 수 있다. 제자훈련은 제자의 행위 변화에 관심이 있다면, 양육은 행위뿐만 아니라 신념과 지식의 변화까지를 이르는 말로 제자양육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신념과 지식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것을 이르는 말이라 하겠다.¹⁶

2.1 구약의 기초

구약에 나타난 일대일 사역의 기초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¹⁴ <http://www.onnuri.org/uploads/2023/08> [2023년 3월 5 일 최종접속].

¹⁵ 은누리 일대일 양육 사역팀,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 양육자 지침서』 (서울: 두란노서원, 2015), 9.

¹⁶ 김도일, 『교육인가 신앙공동체인가?』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8), 153.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의 출발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시작된다.¹⁷

하나님은 한 번에 온 인류를 다 만드시지 않으시고 단지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전 인류를 창조하실 계획을 하였고, 그 계획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은 구약을 통하여 꾸준히 발견할 수 있는데, 노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의 형성, 모세를 통한 인도하심, 다윗을 통한 왕정의 시행, 수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이 그것이다.¹⁸

2.2 신약의 기초

신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일대일 사역의 기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로부터 찾을 수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고 있는 바울의 사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¹⁹

요1:40-42 : 한 사람을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²⁰

1: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1:41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¹⁷ 박성철, “목회사역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일대일 사역에 대한 연구-일대일 전도와 양육에 대하여,”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10), 10.

¹⁸ Ibid., 10.

¹⁹ Ibid., 14.

²⁰ Ibid., 16.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1:42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²¹

예수님은 주로 공생애의 대부분을 12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42절에 주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그의 현재 상황과 인간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러나 주님은 “장차 게바라 하리라.” 는 말씀으로 그의 장래에 변화될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이처럼 주님은 제자들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인간적이고 문제 많은 모습을 잘 아시며 동시에 장차 변화될 모습을 보시며 각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계시는 것이다. 즉 주님은 제자들을 개별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다.²²

바울의 사역에서 발견되는 일대일 사역의 근거들²³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²⁴

바울 사도는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들 각 사람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고 말한다. 여기서 ‘각 사람’ 은

²¹ 요한복음 1장 40-42절

²² Ibid., 17.

²³ Ibid.

²⁴ 사도행전 20장 31절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대했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바울은 각 사람을 개인적인 관계에서 양육하고 세워나갔던 것이다.²⁵

2) 신학적 근거

하나님의 사역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연단 하심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은 소그룹과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사역으로 전개되며, 초대교회 이후의 사역은 개인과 소그룹과 교회 전체의 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일대일 사역 역시 이러한 세 가지 사역의 조화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개별적으로 그와의 관계를 맺으시고 훈련하시는 사역을 우리는 일대일 사역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바울의 표현처럼 사역자는 사역의 결과로 맺어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모와 같은 입장에서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다.²⁶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 개인과 소그룹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사역은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체를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일대일 사역이 절대적인 방법이며 사역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일대일 사역뿐 아니라 어떠한 방법의 사역이든 개인과 소그룹과 전체 공동체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화의 관계 속에서 일대일 사역은 없어서는 안 될 사역의 한 부분인

²⁵ Ibid., 17

²⁶ Ibid., 26.

것이다.²⁷

²⁷ Ibid., 27.

III. 충일교회 일대일 제자양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 충일교회 양육시스템

<그림 2> 충일교회 양육시스템



충일교회 양육시스템은 등록 후 새가족 교육 3주를 받는다. 기신자의 이동이 많으므로 3주간 목회 철학과 방향, 교회 장소 소개 및 양육 프로그램 소개,

그리고 새가족 담당 교역자의 전체 강의로 진행된다. 이후 담당 교구 목사의 심방으로 새가족 교육은 마무리된다. 본 교회 프로그램이 많아서 새가족 교육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후 새가족 교육과 심방이 끝나면 성장의 단계로 나갈 수 있다. 성장의 단계는 필수코스와 선택코스가 있다. 필수코스는 충일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필수코스 유무에 따라 봉사와 섬김에 제약이 있다. 또한 리더로 세우기 위해 최소한 필수코스 2가지 이상은 수료해야 한다.²⁸

선택코스는 필수코스와는 상관없이 새가족 수료자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양육 프로그램이다. 교회 크기에 비해(출석 성도 1,300명) 다양성을 요구하는 지금 이 시대에 부합하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였다.²⁹

필수코스와 선택코스를 수료한 자에 한하여 성숙의 단계로 나간다. 이 과정은 상위코스로서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만이 제자의 단계로 나아가 섬김의 자리에서 리더로 선다.³⁰

이상 충일교회 양육시스템은 등록-성장-성숙-제자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필수코스는 일대일 제자양육이다. 2011년 ‘의정부비전교회’에서 양육자를 파송하여 충일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동반자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양육자 과정을 거친 후 동반자 과정을 진행하여 2023년까지 진행하고 있다.

²⁸ 충일교회 양육프로그램 필수 코스로 ‘알파’, ‘일대일 제자양육’, ‘큐티’를 진행한다. 반드시 이 세 가지 코스를 이수하여야 항존직 피택 및 여러 가지 사역에 참여할 수 있기에 새가족 교육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교육만 진행하고 있다.

²⁹ 충일교회 선택코스는 바쁜 현대인들의 삶의 패턴과 다양한 배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여성 및 성경, 선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다.

³⁰ 충일교회 성숙의 단계에서 바나바, 목장, 중보기도학교는 필수코스 이수과 더불어 은사에 맞게 리더로서 세움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이다.

2. 충일교회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

제1주 - 나눔의 시간³¹

실제적인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다. 동반자와 양육자가 처음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며 언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 등에 관해 서로 나누는 시간이다. 동반자를 알아가는 시간을 위해 <안녕하세요>라는 질문지를 사용한다.³²

<그림 3> 안녕하세요

안 념 하 세 요

아래의 질문은 그리스도안에서 일대일 양육으로 만난 동반자의 참모습을 알고 기도하며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비밀은 절대 영수합니다.

당신의 이력사항을 적어주십시오. (작성일: 년 월 일)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가족관계		하시는 일 (관심분야)	
출석교회		직분(봉사)	

1.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2.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어려웠던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3.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언제,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아직 영접하지 않은 경우(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4. 인생의 비전이 있다면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5. 일대일 만남기간 동안 함께 기도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1)
 (2)
 (3)

충 일 교 회

³¹ 충일교회 일대일 제자양육 첫 주는 ‘나눔의 시간’으로 진행한다. 나눔의 시간을 통해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후 이후 두 번째 주부터 실제적인 양육이 들어간다.
³² ‘안녕하세요’를 기본으로 사용하지만, 양육자와 동반자의 상황에 따라 더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그림 4> 안녕하세요 설명

[안녕하세요] (설명)

1. 목적

일대일 양육은 단순한 성경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자와 동반자가 자신의 삶을 나눔으로써 일대일을 통해 동반자의 삶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지식적인 말씀 공부를 통해서 보다는 삶의 나눔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바입니다.

양육자는 16주간의 양육 기간을 통해 동반자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하기 위해서는 동반자의 상처난 부분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자는 동반자의 보다 깊은 내면적인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동반자가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여 양육자에게 들려줄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는 양육자와 동반자가 처음으로 만나 교제를 가지고 양육을 시작하기 전에 동반자가 양육자에게 마음을 보다 쉽게 오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반자가 양육자로부터 삶의 나눔을 통한 일대일 양육을 받는데 대해 갖게 되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허물 수 있도록 돕고 양육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하여 만들어진 양육 시각의 관문과 같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의 진솔한 작성과 나눔을 통해 양육자는 동반자로부터 인격적인 신뢰를 얻고 동반자가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고 양육자와 삶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양육자는 동반자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동반자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양육자는 동반자에게 "안녕하세요"는 서로가 만나 양육하는 기간동안 양육자는 동반자를 그리고 동반자는 양육자를 위해 서로를 잘 이해하고 기도해 주기 위해 마련된 "지문임"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작성 요령

양육자와 동반자 두 사람 모두 작성하도록 합니다.

양육자와 동반자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므로 사실을 진실되고 구체적으로 격되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3. 나눔 요령

'안녕하세요' 나눔을 통해 각 자의 기본적인 인격 사항과 인생 여정 및 신앙 경륜을 나누고 앞으로의 꿈과 비전 그리고 기도 제목 등을 말하고 들으면서 서로의 참 모습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고, 증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삶을 함께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됨을 이룸으로써 서로가 만날 때마다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어 일대일 시작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만남의 현장마다 아름다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 양육자가 먼저 동반자에게 마음을 열고 나눕니다.
- (2) 즐겁고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동반자가 느낄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나눕니다.
- (3)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진솔하게 말하되 동반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결재하며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에 집중하였음을 동반자가 느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 (4) 양육자가 자신의 현재나 과거의 상황이 부하던지 가난하던지, 즐겁던지 고통 가운데 있던지 주님을 위하여 동반자에게 덕이 되게 나눕니다.
- (5) 동반자가 나눌 때는 전심으로 시선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동반자의 심경과 눈높이로 들읍니다.
- (6)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자세하고 격고 기도로 나눔을 마치도록 합니다.
- (7) '안녕하세요'를 교관하여 보관하고 서로 증보기도 합니다.

제2주 -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지닌 참사람이시다. 성경이 곧 예수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 하는 것이므로” (요5:39)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국적, 출생지 및 성장지, 어린 시절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금식 후에 주리심, 피곤하심, 주무심, 심지어 눈물을 흘리신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인성, 즉 참사람 되심을 알 수 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한 증언하였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셨다는 점에서 우리와 같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 인간과 다르다.³³

제3주 -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하셨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자들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의 제자로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육을 치료하는 봉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중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가 되셨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죄인들을 찾아서 섬기려고 오셨다. 죄의 기원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중심의 삶으로 전환한 것을 뜻한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요구대로 사는 삶의 방식을 취한 것이다. 죄의 결과는 자연의 저주, 일평생의 수고, 영육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자신의

³³ 송정숙,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를 통한 성경적 상담의 적용,”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2006), 22.

사랑을 확증하신 대속적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나의 죄도 포함된다. 십자가의 피로 죄로 인해 나와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도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³⁴

제4주 -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지금 살아서 역사한다고 말한다. 예수는 자기가 죽은 후에 삼 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했고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전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남자만 오백여 명이 보았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고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고, 현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며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롬6:4-5).³⁵

제5주 -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이며 믿은 결과 현재 영생을 얻어 누리며, 미래에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를 믿은 결과 가정이 구원받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³⁴ Ibid., 23.

³⁵ Ibid., 24.

백성과 자녀가 되며 믿는 자들과는 서로 지체가 된다.³⁶

제6주 - QT의 이론과 실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큐티, 즉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바쁘셨지만, 또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끊임없이 영적 교제를 나누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갖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시119:105, 시119:133), 또한 주님의 성품과 인격, 생활을 닮으며(고후3:18),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눅5:15-15, 막1:35) 큐티를 해야 한다.³⁷

제7주 -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신앙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에 대해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4 영리의 내용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하게 한다.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요일5:9-13), 성령의 내적인 증거로(롬8:16),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요일2:3) 나타난다.³⁸

³⁶ Ibid.

³⁷ Ibid., 25.

³⁸ Ibid., 26.

제8주 -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 가지신 성품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변치 않으시고 모든 곳에 계신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핍박을 감내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므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은밀한 어두움의 일에 빠질 유혹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가진 성품은 인자하심과 성실과 의로움, 공의이다. 따라서 죄인 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을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것 같이 흠이 없고 순결하여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하고, 율법이 우리를 온전한 데로 인도할 수 없으므로 예수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고 그의 의를 닮아가며 드러내야 한다. 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다른 종교나 철학이 말하는 신들과 우리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다.³⁹

제9주 - 성경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암기하고, 연구하고,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생활화하여 말씀을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한다.⁴⁰

³⁹ Ibid., 26.

⁴⁰ Ibid., 27.

제10주 -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 영적 싸움은 기도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며, 기도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⁴¹

제11주 - 교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을 헐어 놓으신 십자가(엡2:13-14)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교회에서만 가능하며,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룬 그리스도의 몸을 말한다. 그러므로 참 교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서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지체들의 하나 됨과 다양성을 알게 하여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한다.⁴²

제12주 - 전도

주의 제자에게 위임된 궁극적인 사명은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도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고전1:21).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자기 말과 행동에서 같이 나타나야 한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생활로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정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 또한 전도는 영적 전쟁이므로, 구체적이고

⁴¹ Ibid., 27.

⁴² Ibid., 28.

타당한 전략이 필요하다.⁴³

제13주 - 성령 충만한 삶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라 할지라도 그의 안에는 부단한 갈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본성이 온전하게 성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영적 상황에 늘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 이것은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자신을 이겨내는 길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⁴⁴

제14주 - 시험을 이기는 삶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도 신자는 종종 좌절과 실의를 경험한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시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으로 인해 시험을 당한다(벧전5:8).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온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다. 그러나 사탄은 아직 꼬리에 남은 힘을 가지고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한다(창3:15).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알고 그 시험을 이겨야 한다.⁴⁵

⁴³ Ibid.

⁴⁴ Ibid., 29.

⁴⁵ Ibid.

제15주 -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순종이다. 순종이란 주님 앞에서의 태도를 말한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께 순종하는 진지한 훈련이 필요하다. 순종이란, 주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대단히 짐스럽게 여겨진다. 그러나 순종 없이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없다.⁴⁶

제16주 - 사역하는 삶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는 목적은 평신도를 훈련해 그의 속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로 하여금 봉사의 일, 곧 사역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평신도의 위치가 섬김받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섬기는 사역자의 위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평신도가 사역을 이해하고 사역에 참여해야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⁴⁷

3. 충일교회 일대일 제자양육 메일링(16주 과정)⁴⁸

일대일 제자양육 메일링은 필자가 충일교회에서 일대일 제자양육부를 맡은 동안 동반자 과정이 진행되는 16주간 발송한 메일이다. 동반자와 양육자가 메일링을 통해 그 주에 진행되는 과정에 메일링을 더하여 더욱 깊이 있는 묵상의 시간과 양육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⁴⁶ Ibid., 30.

⁴⁷ Ibid.

⁴⁸ 필자가 처음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이며, 매주 양육이 시작하기 전 각 주제에 따른 글을 발송한 후 양육자와 동반자가 메일링을 읽고 난 후 만남을 가진다.

1) 첫 번째 메일링 : 첫 번째 편지 ‘안녕하세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독이라는 성병에 걸렸고, 여자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그들은 네 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균이 몸에 너무 많이 퍼져 눈이 멀었고, 둘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 역시 몸에 아버지의 균이 너무 많이 퍼져서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고, 넷째 아들은 어머니의 폐결핵이 유전되어서 폐결핵 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부가 새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당신은 의사입니다. 이 부부가 당신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 상담했습니다. 당신 같으면 아이를 출산하도록 돕겠습니까?⁴⁹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든 대답하겠습니까? 가족력과 넷째까지 성한 아이가 없다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산하는 것이 아이와 부모에게 훨씬 더 좋을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이 부부는 베토벤의 부모입니다. 베토벤의 부모는 가족력과 넷째까지 진행되어온 질병이 있더라도 결코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이기에 결코 자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열두 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가난하면서도 무식한 어부, 다혈질이며 광신적인 민족주의자, 나와 가족만을 위해 이웃과 민족을 배반한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보잘 것 없지만 훗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참된 제자가 될 것을 보았고,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내 직관과 감정이 아니라

⁴⁹ <http://www.rima123.tistory.com/1> [2023년 3월 5일 최종접속].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한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 지혜롭지 못합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 같지만 내 감정에 따라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의 경험한 것들에 대한 직관, 우리의 의식과 상식 수준으로 그 누군가를 바라 볼 때 우리 또한 베토벤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첫 시작을 통해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단정하지 마십시오. 내 직관과 내 감정,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동반자와 양육자를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베토벤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2) 두 번째 메일링 :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넌 누구냐?” 많이 들어본 대사입니다. 최민식 주연의 ‘올드보이’ 에서 자신을 15년 동안 감금하고 풀어 준 유지태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유지태의 대답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틀린 질문을 하니까 틀린 답만 찾을 수밖에 없다, '왜 가웠나가 아니라 왜 풀어줬나 '가 올바른 질문이다”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 문제를 인지하는 능력,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 리더의 능력은 답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한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몇 장 남은 사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빠라고 불러 본 기억도 없습니다. 아빠라는 단어는 문자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나의 질문은 ‘왜 날 낳으셨나?, 왜 그렇게 돌아가셨나?’ 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얘기해 주거나, 아니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29년이나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5년이나 하나님은 아빠가 아닌 다가가기에 너무나 불완전하고 머나먼 아버지였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확신보다 언제 어떻게 나를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얼음 위를 걷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나이 29살, 용기 내어 어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이때를 기다렸던지 어머니는 가슴에 깊숙이 묻어 두었던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셋째 임신 계획이 없어 피임하였지만 피임 실패로 저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써 보다가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 그러지 마라”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이것도 생명인데’ 라고 생각하시며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런 셋째 아들이 너무나 가엽고 귀여워 늘 품에 끼고 사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맛있는 것 주지 못하고 좋은 옷 입히지 못해 늘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29년 동안이나 조그마한 사진 속에 가두어 버리고 뽁뽁한 문자 속에 가두어 버렸으니 불효자가 따로 없습니다. 어렵게 보낸 내 과거에만 함몰되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저 자신이 한심합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산소를 찾아가 큰절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넓고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아버지는 그런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사진에서 나오셨다면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문자 속에서 나오셔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하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진과 문자 속에 갇힌 것은 오히려 아버지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주어진 고통과 고난 속에 이 문제의 원인을 아버지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에 아버지를 향해 ‘왜 날 낳으셨나?, 왜 그렇게 돌아가셨나?’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저의 질문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행동과 그 결과에 관한 질문이 아닌 아버지 존재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이 질문을 통해 그동안 쌓여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미안함과 측은함, 감사함과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만남,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함께 알아본다면 우리는 지난날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였던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다시 명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그 사랑에 걸맞은 모습으로 변해 갈 것입니다.

“들꽃처럼” -조성환-

찾아와 주는 이 없는 삭막한 들판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누구와 비교하기 위해서도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닌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바람, 비, 눈, 외로움과 벗하며 지내온 세월
 오히려 내 속은 더 단단해져 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변한 모습에
 내일 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에
 오직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믿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아도
 그 누구 하나 찾아와 주지 않아도
 나는 오늘도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렇게 그 자리에 들쭉으로 살아갑니다.
 내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주신 그분 때문에

3) 세 번째 메일링 :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이키 상대는 닌텐도다’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1위 스포츠용품 업체 나이키(NIKE)는 10여 년 전에 5년 연속 세 배 이상의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해 오다 성장률 둔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질문을 했습니다. ‘성장이 둔화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최대 경쟁자 혹은 최대의 적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하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키의 최대 경쟁자 혹은 최대의 적은 무엇이라고 결론이 났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리복, 퓨마, 아디다스 등이 당연하면서도 영원한 나이키의 경쟁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쟁 상대는 뜻밖의 상대였습니다. 바로 소니, 닌텐도, 애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키는 뜬금없이 소니, 닌텐도, 애플을 지목했을까요? 나이키의 주 목표는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만약 이들이 닌텐도 게임에 정신이 팔려 게임에 몰두하게 되면 집 밖에 운동을 즐기려고 나가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운동화를 신을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나이키는 매출 수익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스포츠업체와 게임업체 중 누가 한 고객의 시간을 더 많이 차지하는가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객에게 얼마나 많은 물건을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24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고객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최대의 적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 봉사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 최대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알지 못하고,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친구들과 아주 썰렁한 농담을 하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왜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지, 왜 빈대떡에 빈대가 없는지, 왜 칼국수에 칼이 없는지, 왜 곰탕에 곰이 없는지, 왜 총각김치에 총각이 없는지, 왜 가래떡에는 가래가 없는지.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부활의 영이신 성령님) 계시지 않는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최대의 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진정 믿으십니까? 평생을 대학생 선교를

위해 헌신하신 로슈 맥도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역사상 최대의 사사극이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는 최대의 비극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희극입니까?

4) 네 번째 메일링 :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전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쥐가 어느 날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왔음을 직감적으로 알고 자손들에게 유언했습니다. “나의 자손들아,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는 ‘고양이’ 이다. 이놈은 민첩한 행동과 날카로운 발톱, 소리 나지 않는 좋은 발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쥐도 새도 모르게 찾아와서 우리를 잡아먹는다. 하지만 우리가 늘 경계한다면 우리의 예민한 코로 언제든지 ‘고양이’ 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쥐뿔’ 이다. 쥐뿔 안에 있는 맛있는 음식 때문에 우리는 쥐뿔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먹는 사이에 갇혀 버리지. 그러나 쥐뿔은 우리가 냉정하게 사물을 바라본다면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장비가 크고 다른 것들과 어울리지 않는 어색함이 있다. 이제 이야기하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니 이것을 특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그것은 바로 ‘쥐약’ 이다. 이 쥐약은 우리의 뛰어난 후각으로도 느낄 수 없으며, 쥐뿔처럼 형체도 없기에 우리가 가장 방심할 수 있단다. 우리가 음식을 찾으러 다닐 때, 혹시 바닥에 놓인 작은 치즈 조각이나 빵 부스러기에 속에 자기 모습을 숨긴 채 들어 있단다. 그러기에 빵 속에 숨겨진 쥐약을 조심해야 한다.”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약간의 노력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 신체적인 고난과 문제들을 통해 우는 사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을 삼키려는 고양이, 쥐뿔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를 요구한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쥐약처럼 우리의 동물적 본능 속으로 파고들어 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사리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헛된 희망을 동반한 절망입니다.

사탄은 인본주의 사상에 젖은 수많은 책과 강연들,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라는 것으로 교묘히 포장해 크리스천의 구미를 당깁니다. 어리석게도 우리 인간은 그 속에는 무색무취의 헛된 희망을 동반한 절망이 들어있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공로와 노력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자기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의 특징은 자력 종교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원래부터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게 하는 헛된 노력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의 자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타력이기에 우리에게 그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일대일 동반자 과정을 하는 동반자, 양육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그 희망을 우리 자신에게 찾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절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으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나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빛이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닌 희망이 실재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만을 의지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5) 다섯 번째 메일링 : 구원의 확신

불안의 원인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불안은 필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의 주어진 상황을 끊임없이 통제하려 합니다. 자신이 이 불안한 상황과 환경의 주체가 되어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도구화시켜 자신의 구미에 따라 요리합니다. 때로는 금식과 기도로, 때로는 빛을 저가며 헌금함으로, 때로는 자기 몸을 불사르는 헌신으로.

또 다른 불안의 원인은 인간이 가진 야망에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성공해야지만 우리에게 호의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좀처럼 웃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야망을 위해 필요한 것 또한 자기 통제력입니다. 이 통제력을 기르기 위해 자기 계발서가 지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와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기 통제력을 키우고 성공에 이르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근본적 불안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주체가 된 자기 통제력의 한계 안에서는 결코 참된 평안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였던 것처럼, 불안은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내 불안을 극복하고 해결하려 하는 무당의 푸닥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 하는 쿠데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제함으로 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제자들에게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통제 밖으로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며 장차 받아야 할 수난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은 지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근심이 한둘이 아닙니다. 3년 고생한 것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데, 금의환향하여 고향에 큰소리치며 살아가 갈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 평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하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으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인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그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평안이십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제는 평안을 얻기 위해, 내 감정에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평안을 찾기 위해 은혜가 넘친다고 소문난 예배당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 환경과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열광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 그대로 작은 것 하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오늘도 나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종으로 부른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작은 소리로 속삭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주체가 되는 말씀, 그 한 절이라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다섯 번째 만남, 구원의 확신!

우리는 이 확신을 얻기 위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붙잡지 않고, 우리 감정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의지를 불태워 내 의로 구원의 확신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신뢰합시다. 우리에게 절대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상황 환경, 우리의 감정일지라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독자까지 내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임을 믿게 될 것입니다.

6) 여섯 번째 메일링 : 하나님의 속성

저에게 ‘무서운 것이 무엇이나?’ 고 물어본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바이킹’ 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소 공포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 공포증의 특징은 높은 곳에 올라섰을 때, 내가 떨어질 것을 상상 합니다.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떨어졌을 때 다리는 부러지지 않을까?’ 등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일어나지 않을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상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올라서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상상력이 나의 머리와 신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 갑자기 정전되었습니다. 칙흑 같은 어두운 방 안에서 자신의 손등에 올라오는 그 무엇이 정말 무섭습니다. 환한 상태에서 그것은 단지 귀여운 곤충일 수 있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두운 곳에서는 나의 상상력을 최고로 끌어올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의 본질은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밤에 해골 물을 마셨던 원효대사에게 그 해골 물은 갈증을 해결해 주는 오아시스와 같은 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무섭고 혐오스러운 해골 물이라는 그 정체를 모르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체를 모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원하는 것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절하게 찾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물일 것이라는 상상하였고, 실제로 그것은 가장 시원한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공포의 본질은 정체를 모른다는 것과 상상력,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어두움은 단지 우리의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도구이지 공포의 본질은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정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를 모를 그것을 향한 우리의 무한한 상상력입니다. 이것이 공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미래에 대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장래라는 어두움에 우리의 상상력을 총동원시켜 공포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워보기 이전 이미 패배한 패전

병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열 한 명의 정탐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정체성을 알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통해 원효대사처럼 해골 물일지라도 갈증을 해결하는 달콤한 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정체성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은 죄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 정체성을 모르기에 우리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좋아하며 따라 살아갑니다. 그 길은 필경 멸망의 길이지만 정체성을 모르기에 오늘도 일어나는 비극이 됩니다. 그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승리할 방법은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아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대일 제자양육 여섯 번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이 요소를 빼버리면 결코 그 존재가 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구성 요소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영원하신 분, 전지하신 분, 무소 부재하신 분, 전능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비공유적 속성), 인자와 성실과 의로우시며 공명정대한 판단(공유적 속성)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여섯 번째, 하나님의 속성 시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인해 세상에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며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일대일 동반자와

양육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 일곱 번째 메일링 : 하나님의 말씀-성경

전에 고등부를 섬겼던 학생 중에 지적장애 1급, 언어장애 1급을 가진 학생이 있었습니다. 말을 못 합니다. 의사소통 할 수 없습니다. 예배 중에 소리를 지르고 예배를 방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약간의 폭력성도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 학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향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를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00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맞추고 인사를 했습니다. 소통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00이를 사랑해” 라고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인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놀라운 변화는 명곤이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사랑과 관심을 준 저는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에게 찾아오는 변화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사랑의 눈으로 자녀를 쳐다보는 어머니는 트림을 어떻게 하는지, 잠자고 싶을 때 내는 울음소리는 어떠한지, 눈썹과 머리카락은 어제보다 얼마나 자랐는지 이 작은 변화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알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신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는 신에 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오로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관한 관심만 있습니다. 그 신에 대한 뜻은 상관이 없습니다. 혹여나 반하는 것이라도 신을 어르고 달래어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를 보시기 위해, 우리를 더 알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33년의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사랑하기에 더 알고 싶고, 사랑하기에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친절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1,500여 년 동안 성령의 감동을 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일곱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관한 관심이 우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알기 위해, 나와 함께하시기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작은 변화까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8) 여덟 번째 메일링 : 기도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하나님께 제단 예물을 드리는 말씀(민7: 2-89)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은 이백 세겔, 금 열 세겔, 수송아지 1 마리, 숫양 6마리, 숫양 새끼 6마리, 숫염소 6마리, 소 2마리. 이

가격을 대략 계산해 보니 35,295,000원입니다. 대충 드린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드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헌은 한 지파가 아닌 12지파 대표 지휘관이 드린 헌물입니다. 그 가격의 총합은 423,540,000원입니다. 입이 벌어지는 금액입니다.

모든 지파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바치는 물건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수에게 상장을 수여할 때, ‘이하 동문’이라 말합니다. 대표자에게만 그 상의 내용을 읽어주고 나머지 사람은 그 내용이 같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상이기에 시간을 아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할 법합니다. 바치는 물건은 다 같은데, 굳이 긴 절을 할애하며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단지 금액이 많다고 그런다는 것은 하나님은 돈을 밝히시는 분으로 비쳐질 수 있기에 그 부분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 나머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은 내용, 숫자 일지라도 그것을 드린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다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1번부터 12번까지 번호를 매겨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닌 한 지파 한 지파 모두 내 자식이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03,550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정확하게 세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머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소중한 내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식이 넷입니다. 넷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네 명 모두 다 이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첫째대로 이쁩니다. 둘째는 둘째대로 귀여운 구석이 있습니다. 이제 웅알이가 터진 셋째, 뒤집기 하는 넷째, 모두 동일하게 사랑스럽습니다. 이 말은 부모라면 모두 공감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백 명 있어도 그 마음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열 달을 배 아파 낳은 내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내버리고 최선을 다해 부양해야 할 내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식 그 어느 누구 하나라도 나머지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일 번입니다.

열등감을 먹고 자란 괴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은 이새처럼 다윗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홍길동과 같은 서자로 저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 ‘새끼’로, 하나님이 생명 던져 건져야 할 ‘목숨’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마음이 전달될 때, 제가 하나님께 드린 첫 고백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나머지’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라 부름으로 지난 과거의 삶을 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떨지라도 언제나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 품에 거하며 자신을 ‘나머지’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나머지는 없습니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여덟 번째 시간,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머지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하나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생각과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은 나머지 인생이 아닌 그 어떤 것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물이 될 것입니다.

9) 아홉 번째 메일링 : 교제

누구를 진정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다 주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것을 다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속에 자신의 존재, 행위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다 주었기에 감사와 기쁨만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마저 사치라 생각하며 철저히 이타적 생각에 사로잡혀 '나' 라는 존재마저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주체가 자신이 되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대는 1을 원하지만 나는 2가 사랑이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끊임없이 2를 주려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으로 인해 사랑은 깊어지는 것이 아닌 서로의 간격만 재확인하는 꼴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실인의 서원법(민6:1-12)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과 그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드릴 것이 없어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남자, 여자).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필경 사랑하는 남녀가 밀애를 나누는 모습으로 연상됩니다. 다른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주인공들만 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는 일 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를 본 유다는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다 드러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언제나

계산적이었으며 본문에서는 그를 실제 돈케 속에 있을 것을 훔쳐 가는 도둑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의 통제권에서 벗어나고 효율성이 떨어지니 은 30냥에 팔아 버린 것입니다.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동참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단어로만 끝나 버립니다. 허공에 사라지는 소리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드림의 기쁨을 모릅니다. 다 드리고도 드릴 것이 없어 아쉬워하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드리신 분입니다. 그분의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분의 요구-나실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규제, 향유 부은 여인의 헌신-은 나를 옳아매는 속박으로 보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옥죄어 오는 머저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을 볼 때, 하나님은 마조히스트, 인간은 사디스트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했기에, 자신 또한 그 사랑의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아홉 번째 시간,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출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믿는 것과 더불어 나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의 말씀들, 교회에서 정해놓은 규제들, 경건한 습관들은 하나님께 드러지는 사랑 고백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심전심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교제의 장으로 동반자 양육자분들을 초대합니다.

10) 열 번째 메일링 : 전도

2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온몸이 암으로 퍼져 있을 때도 염주를 손에 놓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충주의료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요일 예배가 끝나고 그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충주의료원에 계시는데 위독하시다고 하네요.”

이 얘기를 듣고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이기에 지금 당장 올라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편에서는 ‘독실한 불교 신자이며, 밤늦은 시간이어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폐를 끼쳐 교회와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집사님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올라갈게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4:2)

이 일을 계기로 저에게 한 가지 원칙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 예의, 신경 쓰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될 때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 살아날 사람이 죽게 될 수도 있음을 알기에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 것을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사택 아래층에 사시는 할아버지께서 충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잘 아시는 분이 복음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마다 밤 8시가 넘었음에도 충주의료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에 다른 환자분들도 계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미 마음 문이 활짝 열려 계셨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열 번째 시간, 전도입니다. 전도를 못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 합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이유를 가지고 전하지 않아 누군가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바로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누군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11) 열한 번째 메일링 : 성령 충만

목사님이 심방을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더러 "애야, 엄마가 늘 읽던 책 가져오련?" 한다. 그러자 아이가 홈쇼핑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신앙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곳이 가정이기에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성령 충만을 곧 가정에서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감정과 느낌이 아닙니다. 삶입니다."(김기현 저자의 '내 안의 야곱 DNA' 중에서)

다소 광적이라 말할 수 있는 한국교회 예배와 기도예 대해 정곡을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미온적 태도의 신앙이 아닌 열정적 태도를 넘어 광신적 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광신적 모습은 잠깐의

이벤트로는 가능하나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속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심취된 ‘황홀 중독자’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몇 번의 이벤트가 아닌 일상의 삶이 모여져 만들어 갑니다. 인생이라는 화판에 한 번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아닌 스케치를 하고 고치고 그리기를 반복하여 결국에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상에 함께 하는 그 자리, 그 사람들과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지금 나와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일련의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이 필요한 현장에 뛰어들어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 ‘오늘’ , ‘여기’ 가 중요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열한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양육자, 동반자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오늘, 여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지금 만나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오늘의 하루 주께 하듯 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 주어진 환경과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실인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 자입니다. 하나님과 열애하며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도 자신을 붙들어 매는 그의 삶은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일상의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사고와 인식의 체계를 모두 바꾸어 언어와

행동이 나도 모르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진정한 축복은 일상의 거룩한 습관이 형성된 것을 끝까지 유지해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자의 삶은 제사장의 축복문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날마다 평강과 은혜가 넘쳐납니다. 이 축복문은 더 이상 미래에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 지금, 오늘, 여기를 살아가기에 그 복은 현재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실인처럼 오늘 하루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경외함과 구별된 거룩한 습관을 지니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 사고와 인식의 체계를 변화시켜 언어와 행동 습관이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자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가족, 친지, 성도님들, 그리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주님을 소개해 드리는 작은 창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말씀과 함께 지금,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12) 열두 번째 메일링 : 시험을 이기는 삶

중세 회화 기술은 멀리 있는 것까지 포착하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계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신의 것이라 여겼습니다. 즉 세계와 사고와 모든 인식은 신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근법-눈으로 보는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평면으로 옮길 때, 일정한 시점에서 본 것 그대로 멀고 가까운 거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회화 기법-이 발견하면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원근법을 통해 화가는 우주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며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사물을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수평선 저 너머로 펼쳐진 풍경, 식민지 영토,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람은 천국으로부터 수평선으로 시선을 이동시키며, 자신의 주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유리한 자리로 인식되었습니다. 즉, 신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 신이 만물의 창조주에서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인간(人間)을 한문으로 쓰면 ‘사람 인’ 자에 ‘사이 간’ 자가 됩니다. 즉 인간은 ‘어떤 사이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사이엔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時間)과 공간(空間)입니다. 즉 인간은 제한된 시간,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공간이라는 물리적 제한 사이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 생각하며 살아온 인류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공간 사이를 가장 넓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신본주의 시대에 신의 예정 속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와 실존을 인정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고 그 시간의 넓이를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인간임을 계속해서 과학 문명을 통하여 증명하려고 합니다.

아기 때는 엄마 품이 유일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자신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공간의 주인이 되어 더 넓은 집, 더 넓은 차, 더 큰 영향력을 통하여 내가 지배하고 있는 그 공간의 주인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서로 부딪히며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유토피아를

상상해 왔습니다. 계급의 구분이 없는, 서로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며 평화가 존재하는 그런 유토피아 말입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떠나 모든 인간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노력으로, 그 어떤 사상을 통해, 절대 강력한 통치자를 통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 특히 플라톤은 그것을 수호자로 보았고, 공자는 인의 사람, 맹자는 덕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최초의 범죄를 통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인, 시기 질투가 난무하며 언제나 어지럽고 질서가 없으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 하지만 그 끝은 실패와 멸망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출발은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 대한 망각에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인 인간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위치를 망각함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쫓겨났으며 오늘도 우리의 위치를 잊은 채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나의 관점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시험에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제나 나의 위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에 서 있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동반자 양육자분들의 각자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위치, 자녀로서의 위치, 회사에서의 위치, 피조물로서의 위치,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으로서의 위치 등 우리의 위치를 잊지 않고 그 위치에 서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들을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열두 번째 ‘시험’, 동반자 양육자분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으십니까?

13) 열세 번째 메일링 : 순종하는 삶

죄를 짓기 이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참 교통의 관계였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감미로운 순종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과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 인간의 욕망에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의 금식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것을 임의대로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 금하신 그 일로 인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평생 땀 흘림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더 나아가 태생이 먼지와 티끌인 우리 인생은 다시 먼지와 티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시험에서 얘기한 것과 연장선으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결과입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피조물로서의 인간이라는 이 위치를 잊어버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출발은 권위입니다. 예를 들면 노숙자와 대통령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탁이나 명령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당연히 대통령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통수권자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권위와 그 권위 속에 내가 속하였는가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무려 100여 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자라는 이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 인정과 믿음 없이는 그 누구도 방주를 지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순종의 출발은 관계입니다. 아무리 진리이며 좋은 정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대한 불신이 있다면 그 말은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말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반대로 관계가 신뢰로 맺어졌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어떤 말이든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치라고 합니다. 이 말에 아브라함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불평불만도 쏟아내지 않고 묵묵히 순종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코 나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선한 분임을 알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전능하신 분임을 알았으며, 자신과 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열세 번째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인정과 그분은 나에게 가장 호의적이며 좋으신 분이라는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혹시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 두 가지에서 어긋났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렇다면 동반자 양육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부분을 다시 바로잡고 가장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14) 열네 번째 메일링 : 사역하는 삶

미국의 명문 고교인 밥 존스 고등학교에 다니는 전도유망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후 미국으로 건너온 키 작은 까까머리 학생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 지혜와 유머에 반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남편을 따라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도 모르는 한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미국에서 16세 때 운전면허를 뺏던 그녀에게 눈에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미국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남편을 내조하고 교회 사모로서 솔선수범하며 사역했습니다. 1966년 남편이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모로 매일 빠지지 않고 몸빼 바지를 입고 화장실

청소를 하였습니다. “어디서 저렇게 부지런한 과출부를 구했느냐?” 고 묻던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 사모라고 말하면 화들짝 놀라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국에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답게 살았습니다. 이분이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인 김장환 목사님의 아내인 트루디 사모님입니다.

사모님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심겨진 그곳에서 꽃을 피우라!’ 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그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믿고 그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반드시 꽃은 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60여 년의 한국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장소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심겨진 그 사람의 태도가 곧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의 마지막 시간, 사역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 어디가 되었든 그곳에서 꽃으로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곳에서 나를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활짝 핀 꽃으로 나를 심으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 마지막 메일링 : 이성적 신앙과 감성적 신앙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앙의 영적 거인들은 참된 믿음과 한동안 흔들고 지나간

감정의 체험을 구분하려 애썼습니다. 얼마 전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교회 본당에서 기도를 마치고 길가로 나왔는데 마침 승용차 한 대가 다가오더랍니다. 차의 종류와 색깔이 제 차와 같았고 번호도 똑 같아 고맙게 생각하면서 반갑게 손을 흔들어 차를 세웠습니다. ‘날이 추우니 남편이 나를 태워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런데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뜻밖에 처음 보는 남자가 얼굴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저를 아세요?” 자세히 살펴보니 앞부분의 식별 번호가 달랐습니다.

믿음이 생겼지만, 지식이 정확하지 않았기에 실수가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할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지속해서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서 바르게 제시되어도 그것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물며 지식이 제시되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도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해야 하고, 은혜가 떨어졌을 때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육자 동반자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이성적-말씀-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인인 우리들의 변화무쌍한 감정에 휘둘려 풍랑 위에 표류하는 ‘부표’ 신세가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 ‘어떻게 신앙인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모두 제각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우리들의 감정에 주목하게 합니다. 영원한 진리인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며 ‘지금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라’ 합니다. 그로

인해 ‘나는 최소한 내 감정은 속이지 않는 정직한 사람’, ‘연약한 내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뿐’ 이라 고백하며 잠깐의 위로를 통해 예수님을 단지 내 감정의 배출구로만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육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그러한 것처럼 감정이-그렇다고 감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배제할 때 우리의 신앙은 교조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성을 지배하는 것에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왜냐하면 감정은 본능이기에 쉽기 때문입니다). 힘써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 어떤 경우에서도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선진 들이 걸어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4. 충일교회 일대일 제자양육 페스티벌

일대일 제자양육 페스티벌은 2011년도에 처음 충일교회 일대일 제자양육 사역이 시작된 이후 필자를 통해 처음 한 사역이다. 만 6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동반자와 양육자를 배출하였는지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며, 6년의 시간 동안 형성된 가계도를 살펴보고 양육의 흐름을 파악하는 시간이었다. 이 시간을 통해 일대일 제자양육이 왜 필요한지 함께 공감하였고, 일대일 사역이지만 충일교회 한 지체로서 공동체성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4.1 일대일 제자양육 페스티벌 계획안

<그림 5> 2017 일대일 제자양육 페스티벌 계획안⁵⁰

2017 일대일 제자 양육 페스티벌 계획(안)

1. 기본사항

1) 목적:

총일교회 일대일 제자 양육 과정을 마친 동반자 및 양육자가 함께 모여 지금까지 일대일 양육자 과정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서로 교제하며 연합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일 시: 2017년 7월 1일 토요일 11시~3시

3)장 소: 총일교회 물댄 동산 및 식당

4)대 상: 총일교회 일대일 동반자 양육자 과정을 마친 성도(153명 중 80-100명 참석 예상)

⁵⁰ 2017년 제1회 일대일 제자양육 페스티벌(필자가 처음으로 만들고 시행하였다).

<그림 6> 2017 일대일 제자양육 페스티벌 타임 테이블

2. 타임 테이블

순서	소요시간	내용	담당자	준비
1부 오프닝 예배				
찬양	11시~11:20	찬양	김만석 목사	
기도	3분	대표기도	이상령 장로 (평신도 양육 위원장)	
동반자 간증	3분	동반자 과정을 마친 소감에 대한 간증	이주연 집사	간증문 BGM
말씀	20분	구원의 확신	곽승현 위임 목사	
축도	1분		곽승현 위임 목사	
2부 일대일 양육 페스티벌				
식사	11:50~12:50	식사 및 교제	박선숙 권사	
레크리에이션	27분	교제 연합 (성구 암송 게임)	강신명 전도사	
찬양	3분	일대일 축복 찬양	조성환 전도사	PPT
특강	60분	일대일 제자의 목적 및 비전	장상태 장로	
특송	5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수인 자매	PPT
양육자 간증	3분	동반자 양육을 통해 받은 은혜 간증	권귀숙 집사	간증문 BGM
일대일 계보	5분	일대일 양육의 가계 흐름을 통해 증일교회 양육 시스템의 흐름을 파악	조성환 전도사 (홍현철, 이종순, 이의홍)	가계도
기도 합주회 (마무리 기도)	10분	일대일 양육 비전을 위해	조성환 전도사 (곽승현 위임 목사)	반주자
광고	3분	수료식, 양육 과정 소개	박선숙 권사	

4.2 일대일 제자 양육 페스티벌 양육자 간증

양육자 간증

11기 동반자 양육자

○○○ 집사

안녕하세요! 저는 충일교회에 등록한 지 만 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기 동반자를 양육하고 있는 ○○○ 집사입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일대일 동반자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하지만 찢먹이를 데리고 아주 힘겹게 동반자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다시 동반자 과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단에서 일대일 제자양육 광고를 할 때면 이상하게 맘이 편치 않고 숙제를 하지 않은 듯한 찢찢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동반자 과정 신청도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찢찢한 마음도 성령께서 주셨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대일 동반자 과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양육자님을 만난 첫 시간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제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양육자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감동은 더해졌고, 말씀을 공부하는 동시에 양육자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쁘고 고된 직장생활과 세 아이를 양육하며 쌓여가는 가사와 더불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습과 암송도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육자님이 저를 이해해주고 중보해 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힘이 되었고, 양육자님을 만나면 모든 힘든 것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게 여겨지고 삶의 새 힘을 얻어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공부 이수만 하려고 했던 제 마음에 ‘양육자와 같이 다른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자가 되는 양육자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저분처럼 훌륭한 양육자가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며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육자 과정을 마친 후 생각지도 못했는데 동반자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처음인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번 말고 다음 번에 할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 권사님께서서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 하실 거야!’ 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동반자를 만나 지금도 일대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둘 다 직장생활에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어서 만남의 시간이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서로 시간과 장소를 배려하며 만날 때마다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매번 만나기 전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동반자와의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후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양육하시니 부족한 것은 성령님이 채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부족한 저를 일대일 동반자 과정으로 양육하여 제자 만들어 주시고, 부족한 제자인 저에게 열심히 양육을 받은 동반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충일교회 일대일 제자양육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양육자 간증

11기 동반자 양육자

○○○ 집사

안녕하세요. 충일교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고 있는 ○○○ 집사입니다. 일대일 양육자로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얻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양육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동반자와 일대일 만남을 통해 서로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동반자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에 삶이 ‘왜!’ 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로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의 동반자님은 워낙 주님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하셨던 분이라 솔직히 어렵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 주님 이번 동반자는 좀 편안한 분으로 짝을 지어 주시지...’ 이 또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자기 교만이란 생각이 찾아왔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모든 만남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을 할 때 동반자의 말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 오픈 안 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쉽지 않겠네.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후 저의 대답은 “네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서먹한 관계 속에서 헤어지게 되었고, 두 번째 만남을 위해 다른 때 보다 더 많은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이분에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조금씩 마음속 깊은 것까지 말씀하시고 기도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과 삶으로 인해 너무 힘들고 지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동반자의 모습을 보며 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지혜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일주일간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모든 언행과 생각을 바꾸서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일주일 후에 놀라운 은혜에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생활에 지치고 사람에게 지쳐서 힘들었던 일들이 축복의 언어로 인해 해결되고 가족관계에도 화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외적으로 비치는 모습을 통해 오해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하지만 그 누구보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애쓰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셨습니다. 동반자를 통해서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습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했던 모습들을 하나 둘 바꿔주셨습니다. 올해 저에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치고 아픈 한해였습니다. 1년 동안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고 일대일을 통해서 위로 받고 새 힘을 얻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환한 곳으로 나올 수 있는 감사에 시간이었습니다.

일대일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고백하고 인정하는 복된 시간임을, 목사님 말씀처럼 가르치는 학식이 아니라 양육자 삶 자체가 본이 되고 낮아지고 은혜를 끼치는 자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려 주는 마음, 주님 안에 동반자들이 회복 되어 지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 나를 정비합니다. 기도가 아침의 열쇠가 되고, 저녁의 자물쇠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3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자 현황

<그림 7>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현황⁵¹

구분	동반자 과정 수료자
1기 (2011.09.04-2011.11.27)	16명
2기 (2012.07.01-2012.10.30)	11명
3기 (2013.03.10-2013.06.27)	11명
4기 (2013.09.01-2014.01.19)	10명
5기 (2014.02.23-2014.07.27)	12명
6기 (2014.09.21-2015.01.25)	11명
7기 (2015.03.08-2015.07.19)	21명(6기 2명 포함)
8기 (2015.09.07-2016.01.17)	21명(7기 3명 포함)
9기 (2016.03.08-2016.07.24)	27명
10기 (2016.09.20-2017.01.15)	13명(전 기수 4명 포함)
11기 (2017.02.27- 현재 진행 중)	18명 예정
소 계	153명

⁵¹ 충일교회 일대일 제자양육부에서 진행한 2011년~2017년까지 상황이다.

<그림 8>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 현황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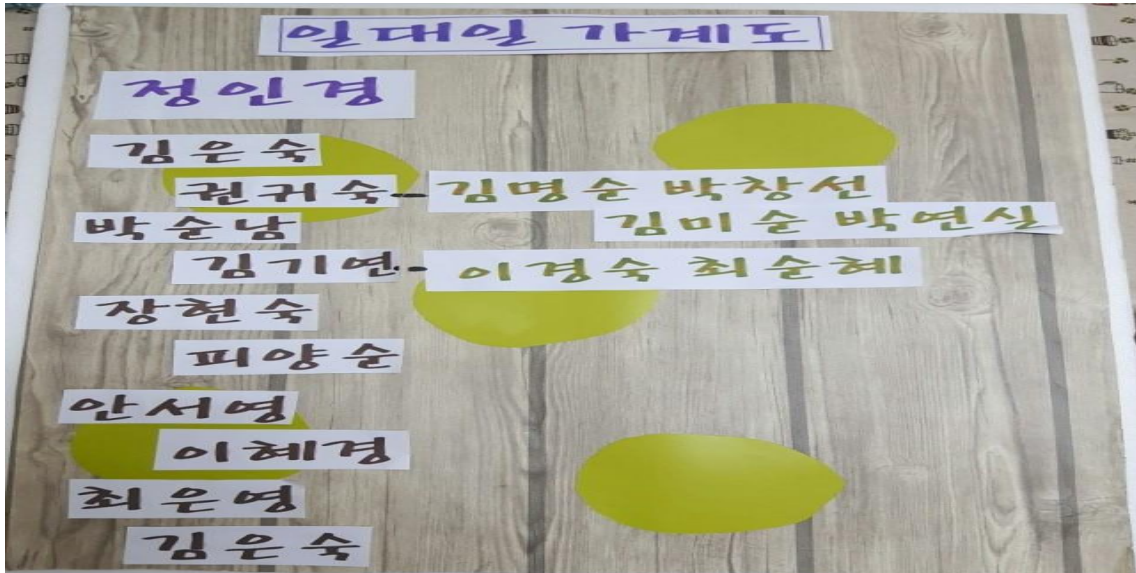
일대일 양육자 현황

구분	양육자 과정 수료자
1기 (2012.02.19-2012.05.27)	12명
2기 (2013.03.10-2013.05.28)	6명
3기 (2013.09.01-2014.01.19)	6명
4기 (2014.09.21-2015.01.25)	14명
5기 (2015.03.08-2015.07.19)	10명
6기 (2015.09.07-2016.01.17)	13명
7기 (2016.03.08-2016.07.24)	7명
8기 (2016.09.20-2017.01.15)	8명
9기 (2017.02.27.- 현재 진행 중)	15명
소계	76명

⁵² 충일교회 일대일 제자양육부에서 진행한 2011년~2017년까지 상황이다.

4.4 일대일 제자양육 가계도

<그림 9> 일대일 제자양육 가계도 1 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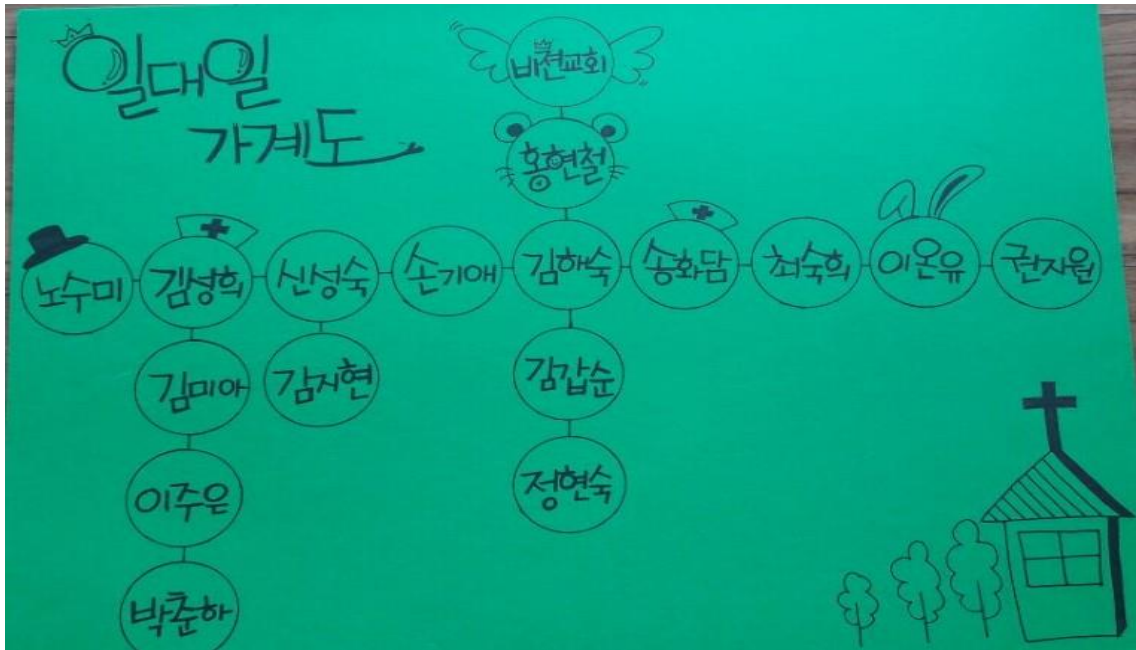
<그림 10> 일대일 제자양육 가계도 2 ⁵⁴



⁵³ 충일교회 일대일 제자양육부에서 2011년~2017년까지 수료한 일대일 가계도 1

⁵⁴ 충일교회 일대일 제자양육부에서 2011년~2017년까지 수료한 일대일 가계도 2

<그림 11> 일대일 제자양육 가계도 3 ⁵⁵



<그림 12> 일대일 제자양육 가계도 4 ⁵⁶



⁵⁵ 충일교회 일대일 제자양육부에서 2011년~2017년까지 수료한 일대일 가계도 3

⁵⁶ 충일교회 일대일 제자양육부에서 2011년~2017년까지 수료한 일대일 가계도 4

IV. 충일교회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자 간증문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 양육자 과정 16주를 수료한 사람들의 간증문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기 전 신앙의 상태와 삶의 모습과 경건의 생활은 16주 후 수료한 모습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었고,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다. 16주 동안 양육자와 일대일로 만나 말씀을 매개로 삶을 나누며,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그 시간은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성도의 성숙과 성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⁵⁷

1. 동반자 과정 수료자 간증문

일대일 동반자 과정 10기 간증문

○○○ 성도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 시부모님이 다니는 충일교회에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해 2년 동안은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러다 2016년 1월에 새가족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막연했고, 또한 믿음에 있어 확신도 생기지 않았습니 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워 첫 발을 내 딛는 단계와 같던 저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 성경과 하나님 더 알아야 겠다’ 는 생각에 일대일 제자양육

⁵⁷ 동반자 과정 수료자들은 반드시 간증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 동반자 과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과정을 신청했을 때 ‘임신 6개월 무렵 이었고, 직장생활도 함께 하고 있어서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부담감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 걱정이 무색하게 저에게 너무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고, 아들 또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되어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을 받는 동안 의무적이거나 귀찮음이 아닌 하루하루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양육자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일대일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삶을 누구에게 깊이 털어 놓지 못했던 저는, 양육자와의 첫 만남에서 저의 힘들었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를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양육자의 손길에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주일설교 말씀을 나누고, 관련된 말씀을 노트에 적고, 성경 읽기와 암송, QT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게만 느껴지던 성경말씀에 눈을 뜨게 해 주었고,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암송을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오랫동안 새겨지며,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감사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마다 더 진실 된 마음으로 나를 지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대일 제자 양육과정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 졌습니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만이 아닌 제 모든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던 참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것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성도간이 교제, 복음전파, 성령 충만한 삶, 시험을 기는 삶, 순종하는 삶, 사역하는 삶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려 깊은 배려와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양육자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저를 변화 시키시는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교제의 키 그림을 마음에 새겨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로 매 순간마다 다짐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대일 동반자 과정 11기 간증문

○○○ 성도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시작하며 16주 동안 나와 함께 할 양육자 분이 누구일까? 기대를 하던 차에 담당양육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 권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어서 나름 긴장이 되었습니다. 첫 만남을 가진 날 인사를 나누고 ‘안녕하세요’ 지문을 작성하며 작성한 지문을 토대로 서로의 삶을 나눌 때 서먹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만남이지만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처럼 느껴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첫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일대일 동반자 과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교재를 꺼내 숙제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암송구절은 메모지에 따로 적어서 가방에 넣고 출, 퇴근시간을 이용해 암송했습니다. 교재를 읽고 성경구절을 정성들여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하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리라 다짐을 하였습니다.

매주 양육자와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서로 한 주간의 삶을 나눌 때 그 주의 교재내용에 맞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회개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어 더욱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대일 동반자 과정을 하고 있던 중에 잘 지내던 직장동료와의 갈등으로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출근하기 전, 오늘은 동료와 잘 지내기를 기도하고 다짐하면서 출근했지만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동료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발견하며 그 단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성령 충만’에 대해 양육 받는 시간,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 큰 찢림을 받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일대일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평안한 마음이 들어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여 동료교사에게 먼저 화해할 것을 제안하면서 손을 잡는 순간 서로의 미웠던 감정이 눈 녹듯 사라졌고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와 동료는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되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 주 권사님을 만나 동료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간증하니 권사님께서 더 기뻐하시며 잘했다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고 더욱 더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 편에는 부담도 생겼지만 이제 양육을 받았으니 나도 좋은 양육자로 쓰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대일 동반자 과정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또 양육자 권사님의 헌신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 말씀과 기도가 병행된 믿음생활을 위해 힘을 쓸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일대일 동반자 과정 11기 간증문

○○○ 집사

2016년 알파 5기를 마치고 성경에 대해 궁금했던 차에 일대일 제자양육을 권면 받았습니다. 권면을 받고는 망설임 없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편한 시간에 만나서 교제하며, 또한 양육자님의 가르침과 나눔을 받는다는 것이 내심 좋았습니다. 양육자 집사님과 일대일 제자양육 교제를 통해 성경구절을 예습하며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일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되도록이면 한 번 약속한 시간은 가능한 미루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나라도 나를 깨우쳐주시려는 양육자님의 정성과 노력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난 그 동안 죽은 믿음이었으며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왔던게 분명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수년, 아니 20~30년을 교회 다닌 내가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빈 몸으로만 교회라는 곳을 왔다 갔다만 했지 진정 성경공부와 기도 등 예수님과 진리를 알려고 노력 하지도 않고 등한시켰으며 전혀 관심이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가정살림에 아이들 양육에 직장생활에 바쁜 핑계도 많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진리를 궁금해하며 갈구하기도 했었지만 일상생활에, 또한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만 이상승배 하듯이 살아온 속물인간이었던걸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진리 찾기를 금은보화 찾듯이 하라’는 성경구절이 머리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상승배란 다름 아닌 주 예수님을 마음중심에 두지 않고 아무 가치 없는 돈, 집, 자동차 등에 그리고 남의 시선에 더 많은 마음을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알파와 양육자 집사님과의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삶을 나누며 성경중심의 말씀만을 나눌 때 정말 마음이 좋았습니다. 내 영혼이 배고파했었고 내 영혼이 밥을 먹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구절 하나하나 찾아가며 읽는 순간만큼은 내 마음 속에 들어왔고 ‘아~~!! 맞아 ~~’ 하는 깨달음이 들을 때면 내 영혼 깊은 곳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내가 세상 속물이었을 때 내 안의 성령님은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성령님은 나를 오래오래 기다려 주신 것 같았습니다.

성령님에게 미안한 맘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세상 속물근성을 잘라내 버리고 그리스도를 정말 내 삶의 중심으로 삼겠습니다. 나를 충일교회로 이끌어 주신 보이지 않는 힘(성령)에 감사합니다. 충일교회로 오게끔 그 동안 내 마음은 황량하고 풀 한 포기 없는 사막 같았고 힘들게 했던 시간들에게 오히려 감사를 느낍니다. 나를 연단하기 위한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나는 충일교회에 와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마음 편하고 아무 문제없고 돈 걱정 안 하고 무사태평했다면 어땠을까. 힘든 시간들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힘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양육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은 동반자과정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고 또한 주님께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로 삼고 느리더라도 한걸음 한걸음 주님께로 방향키를 확실히 고정하고 걸어가려는 마음입니다. 그 동안은 돈을 위해 살고 물질과 내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이리도 모르고 여태 살았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모르지만 알려고 한걸음씩 다가가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맡기며 양육자과정도 진행하려 합니다. 내 맘속에 선과 악을 바로 알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스스로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손 꼭 붙잡고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15기 동반자 과정

○○○ 성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저의 영적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무미건조한 신앙생활로 인해 그저 그렇게 교회만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별 관심도 없고, 묵묵부답인 기도 응답들을 보며 마음이 매우 지쳐있었습니다. 또한 무엇인가 헌신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실 것만 같은 조건적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좋은 성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소리와 명분들은 내 마음을 너무 짓눌렀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도 전부 사라진 채로 그렇게 적당히 교회를 다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일대일 동반자 과정을 하라고 하셨을 때도 그리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하기 싫은 마음도 많았지만 4개월 정도 받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대일 성경 공부는 시작되었습니다.

일대일 성경공부 첫 만남 때부터 끝날 때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성경공부는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양육자를 통해 하나님의 본심과 사랑이 온전히 나에게 부어지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상황들과 내 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자께서 금요 불바람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는 나눔을 듣고 도전 받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불바람 기도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마다 일대일 제자양육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들이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시간을 함께 조율하고 약속하는 과정 속에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차갑고 무서운 하나님이었는데 양육자와 함께 일대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잘하지 못하는 너는 가치가 없다’ 라는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기대하시며,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들을 주시길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목상한 말씀이나 큐티를 함께 나눔 할 때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손으로 쓰는 것을 정말 싫어해서 느낀 점을 짧은 한 줄, 아니면 길면 세줄 쓰는 목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턱없이 빈약한 저의 목상과 그저 습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큐티 노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씀과 적용 부분을 전부다 적다 보니 내 영혼으로 들어오는 말씀의 양과 깊이가 한층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통독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하루 중 틈이 날 때 아주 조금 말씀 읽던 습관에서 벗어나 틈만 나면 말씀 보는 습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 희미해졌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제는 확신이 생기고 마음과 생각이 천국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후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놀라운 평안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몇 달 전만 해도 구약을 읽고 있으면 한숨이 나올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고 막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예배 때 주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전에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냥 습관처럼 가서 앉아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모하는 마음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배 시간에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예배를 드리니 말씀 하나, 찬양 하나, 기도 하나하나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전에 생각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왜 나만'이라고

불평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을까'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나니 모든 것이 감사하고 지루했던 나의 일상이 오히려 기대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던 저에게 충분히 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셔서 제 삶이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회복되어 '성령 충만 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하지 못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언제나 기다려 주시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15기 동반자 과정

○○○ 집사

성경을 알고 싶고, 믿음의 선배와 교제가 갈급하여 일대일을 신청했습니다. 그 후, 일대일을 같이 신청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양육자가 정해졌다고 하면서 양육자 집사님 성함을 말하는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저로서는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낯을 가리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모르는 분과 일대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저의 양육자 집사님께 연락이 왔는데 교회에서 자주 뵈는 친근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양육자 집사님의 성함을 듣는 순간 마음이 활짝 열렸고, 일대일 시간이 기대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양육자 집사님과 저는 비슷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삶의 과정, 가정 상황과 현재 어려움도 공감하며 울고 웃으며 서로의 마음을 내어주고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어렵고 딱딱한 교제에 충실한 일대일이었지만 집사님의 삶을 나누면서 설명해주시니 이해도 잘 되었고 제 얘기도 술술 나왔습니다. 그때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사님과 제가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고 첫 만남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중보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모임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갓난아이는 열 달 동안 임신 과정과 고통스러운 출산 과정을 전혀 모르듯이 그냥 집사님과 얘기가 잘 통하는 줄만 알았지 이 모임을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일대일 과정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다! 끝까지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사실 같이 알파 과정을 했던 동생이 일대일을 같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생은 다른 분들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하지 못할 것 같으니 언니가 양육해달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꼭 일대일 교육을 잘 받고 양육자 과정까지 이수해서 이 동생과 성경공부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푼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을 내는 만큼 사탄도 열심을 내어 방해했습니다. 아이 셋, 직장에 다니시는 양육자 집사님과 두 아이가 있고 직장에 다니는 저에게 일주일에 1-2시간을 내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습과 성경구절 암송 등 점점 쌓여만 가는 과제들이 부담되었고, 한 번 만나기도 힘들었고, 만났을

때도 다음 모임은 또 언제 해야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양육자 집사님께서 이런 저를 충분히 이해해주셨습니다. “집사님 힘드시죠, 아이 키우랴 직장생활 하랴 예습에 암송까지 보통 일이 아니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집사님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해요.” 이 말씀은 휘청거리는 저를 다시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대일 이후 양육자 과정을 신청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일대일 1시간도 내기 힘든데 교육과 또 양육 받으시는 분과 약속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지막 예습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적게 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제 자신이 한 알의 밀이 돼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대일에서 배운 말씀을 지식으로 머리에만 담지 않고, 착한 행실로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기로 결심합니다. 일대일에서 배운 설교 노트와 기도 노트, 말씀 적기와 암송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기로 다짐합니다. 양육자 집사님과 여러 기도해 주신 분들 이런 교육을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16기 동반자 과정

○○○ 집사

충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부분이 정착할 교회를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손이 많이 가고, 보살핌이 많이 필요로 하는 6살 딸과 3살 된 아들이 있었기에 될 수 있으면 집과 가까운 교회, 아이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교회학교가 있는 곳을 제 나름의 기준을 삼고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양육의 부담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고 지쳐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은 뒷전이었고, 아이들이 교회학교를 다님으로써 그 시간만이라도 이런 저의 짐을 교회가 조금 덜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제 생각과 계산대로 아이들은 교회학교를 너무 좋아했고, 저는 잠시 동안이지만 온전히 자유(?) 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런 교회 생활에 만족하며 예배를 보고 안주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셨는지 어느 날 일대일 담당 목사님께서 ‘일대일 양육’을 받아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처음 제안하셨을 때는 웬지 교회에 매이는 것 같은 부담감과 하는 일이 있다는 핑계로 거절하였습니다.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차수에 또 저를 기억하시고 다시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핑계 달 게 없어 한편으로 부담감과 불편함을 품고 일대일 양육 교육반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양육자 집사님과의 만남 통해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가졌던 부담감이 오히려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책자가 있었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증으로 나누며, 힘을 얻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욱이 양육자 집사님 아이들과 저의 아이들의 연령대가 비슷하여 하나님 안에서 양육해야 하는 육아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시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저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일대일 양육을 받기 전에는 저의 신앙은 ‘혼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 형제·자매가 없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 같고, 나 혼자 해결 하려고 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더구나 교회를 옮기고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터라 더욱 그렇게 느끼고 생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남한테 최대한 피해를 안 주고 도움도 안 받겠다’ 라고 생각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대일 양육과정을 통해 저와 정반대 성격을 가진 집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혼자가 아닌 나를 위해 중보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신앙 상태를 아시고, 어려움을 아신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쁜 일상생활을 핑계로, 힘든 육아를 핑계로 한동안 하지 않았던 큐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큐티책 구입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일대일 과정 중에 큐티 점검표가 있어 의무적으로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왕 마음먹고 하는 거 시키는 대로는 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 또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일대일 키 그림을 통해 나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사역, 순종, 교제, 전도, 기도..)만이 진정 하나님의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더 다듬어져야 하는 질그릇이지만 이번 일대일 양육 교육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오롯이 하나님 한 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양육자 과정 수료자 간증문

일대일 제자양육 13기 양육자 과정

○○○ 집사

저는 청년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닌 탓에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충일교회에 와서 알파, 일대일 동반자 과정을 들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2015년 일대일 동반자 과정을 마치고 4년 만에 일대일 양육자 과정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맞지 않아서, 아이가 어려서, 여러 여건이 되지 않아 여러 핑계를 대며 미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과 다르게 어떤 거부감도 없이 2019년에는 양육자 과정을 꼭 듣고 싶다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성경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시작한 양육자 과정 첫날, 이것은 동반자 양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담감은 잠시였고 목사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강의해 주시는 매시간이 감사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로 시작된 질문 앞에 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는 말씀에 내 생각이 철저히 깨어졌습니다. 내가 생각한 믿음은 세상의 믿음. 즉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라는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차가 거듭될수록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가운데 수많은 오해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하면서도 거듭난 영혼인가 아닌가의 질문에서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보이는 내 모습 속에 낙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변함없는 사실과 주님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양육자 과정을 들으면서 좋았던 것은 큐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펴기까지 어려워져서, 말씀이 와 닿지 않아서, 방법을 잘 몰라서 등의 여러 이유로 큐티를 꾸준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육자반에서 배운 대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날마다 큐티를 하고 적용할 때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매주 해야 하는 암송 숙제는 가장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짧은 구절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조차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보며 내가 얼마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보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내 생각이 크게 변화되었던 부분 중의 하나는 기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았을 때, 어린아이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만을 부르짖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기도, 장년의 기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의 소망과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기도에 힘써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양육자 과정을 마치며 처음에 가졌던 동반자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양육을 하기에 너무 부족하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을 만한 성품이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실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이기에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나 준비하여 행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대일 양육자반 9기 간증문

○○○ 권사

일대일 동반자를 끝내고 양육자를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 몫은 동반자까지만 이야’ 라며 양육자반을 하라는 말에 늘 고개를 젓곤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양육은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언제나 ‘NO’ 였습니다.

그러던 지난겨울 남편이 사고로 다치게 되었고 나는 남편의 간호 차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의 2달은 정말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매일 1장씩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신앙이 젓 먹는 어린아이와 같기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또한 사고로 육체적 고통보다 심적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조심 또 조심하였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남편이지만 시편은 어디서 들었는지 시편을 읽자고 하였습니다. 시편을 읽는 동안 다윗이 아들에게 쫓기어 암담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금의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성경 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성경을 읽어주던 어느 날 남편은 성경 속의 말씀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이건 무슨 뜻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대일 양육자반 제안을 받았고 도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예배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읽고 알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남편과 같은 성도들에게 내가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면서 2시간 동안 의자에 잘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걱정하며 시작한 수업은 그 시간이 길다고 느끼지 못하며 한 주 한 주 지나갔습니다.

매주 2개씩 외워야 하는 말씀 암송은 또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암송하는 동안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동안 말씀 안에 즐거워하고 춤추지 못했던 나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또한 목요 양육자반 큐티 나눔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잔치를 엿볼 수 있어 더욱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한 집사님들과 열정을 다해 가르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귀중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심이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대상 29:11-12)

VI. 결론

1. 요약 및 평가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만 6년의 시간 동안 충일교회에서 진행한 일대일 제자양육에 관한 연구이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수료하면서 삶의 변화들을 보았고, 나 또한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하면서 경험하였다.

그런데 왜 오래 동안 교회를 다녀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1장에서는 연구의 동기의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과 범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성도들과 삶의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의 차이는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아야 하느냐,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받아야 하느냐는 이 차이에 있다고 했다.

훈련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 필자가 경험한 일대일 제자양육이며 일대일 제자양육은 무엇인지, 성서적, 신학적 근거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2장에서 다루었다.

3장에서는 충일교회에서 필자가 실제 진행하였던 일대일 제자양육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충일교회 양육시스템을 이해하고, 필수교육으로 일대일 제자양육과정을 설명하였으며,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한 깊은 묵상을 위해 16주 동안 진행된 일대일 메일링, 그리고 일대일 소그룹의 한계성을 느껴 일대일의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일대일 페스티벌을 소개하였다.

4장에서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수료한 분들의 간증문을 통해 일대일 제자양육이 가져다 주는 삶의 변화와 신앙의 성숙과 성장 등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점점 개별화가 진행되는 것을 뛰어 넘어 나노 사회-한국 사회가 파편화되고 있다. 공동체가 개인으로 조각조각 부스러져 모래알처럼 흩어진다.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며 서로 이름조차 모른 채 고립된 섬이 되어 간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가 극소단위로 분화됐다는 의미에서 ‘나노사회’라 명명한다⁵⁸-가 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일대일 제자양육처럼 한 개인을 위해 맞춤 준비된 양육 프로그램은 없다. 현시대 상황 속에서 가장 알맞은 제자양육 프로그램이다.

2. 결론 및 제언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지표는 무엇으로 삼아야할까?’ 이 논문을 쓰게 된 결정적인 질문이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지표는 숫자였다. 그렇다고 이 숫자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숫자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속하지 않고, 세상 위에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의 모습 말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일대일 제자양육에서 찾았다. 7년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충일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 일대일 제자양육을 담당하고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많은 제자양육 프로그램 중에서 일대일 제자양육 프로그램이 주는 장점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첫 번째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⁵⁸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22』 (서울: 미래의 창, 2021), 169.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은 현대인들의 마음에 심각한 저항감을 일으킨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비슷하다. ‘권위도 권위 나름이지.’ 함량 미달인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까? 학대하는 아버지에게도 순종해야 할까? 날마다 술독에 빠져 있는 엄마에게도 순종해야 할까? 야비한 직장 상사에게 순종해야 할까? 야심에 짝 찬 속물 정치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할까? 이것이 문제다. 우리는 그 권위에 내가 순종할 만한 가치와 자격이 있는 권위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반문하고 갈등하게 된다. 성경의 대답은 분명하다 그럴지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권위의 질이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다. 실용적 이익 때문도 아니다. 나와 코드가 맞기 때문도 아니다. 그 권위의 질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그 권위들을 통해 권한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⁵⁹

일대일 제자 양육 또한 권위에 대한 순종을 철저히 배운다. 내가 배우고 싶은 양육자, 동반자를 선정할 수 없다. 일대일 사역부 임원들이 기도하면서 양육자와 동반자를 연결시킨다. 그리고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으로 권위를 인정한다. 처음부터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을 배운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단 한가지 일도 그분의 관심 밖에서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적이 없다. 삶 전체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간섭 아래 있다. 이것이 섭리다.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고 소망을 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언제

⁵⁹ 양승현, 『크리스천 믿음 하』 (서울: 디모데, 2017), 191.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모든 삶, 모든 영역, 모든 부분에 미치고 있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 그것을 믿을 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어디 가신게 아니고 지금 그것을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⁶⁰

일대일 제자 양육 간증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을 만날 수 있을까?’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이런 분을 연결시켜 주셨을까?’ 동일하게 고백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나갈 때, 일대일 제자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경험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맹목적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교회 시스템을 아는 지식이었다. 하지만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암송하고, 찾아서 쓰고, 삶 속에서 역사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고 나눔을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났다. 그래서 구원에 확신과 죄 사함에 은혜, 경건한 훈련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당연하지만 삶의 변화이다. 언어의 변화이며, 생각의 변화이다.

네 번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니 자연스럽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한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가 이제는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니 신앙생활은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⁶⁰ 양승현, 『크리스천 믿음 상』(서울: 디모데, 2017), 154.

신앙생활이 아니다. 역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된다.

다섯 번째, 교회 적응이다.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떤 공동체에 속하여 다수에게 자신을 오픈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러나 일대일 제자양육은 한 명에게 자신을 오픈하면 된다. 더군다나 양육자가 먼저 자기 삶을 오픈한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동반자 또한 삶을 오픈하면서 한 지체임을 경험하게 되고, 양육자의 리더십 아래에 들어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의 접촉점들이 넓어져 간다. 그래서 교회 적응이 누구보다 쉬우면서도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다.

왜 일대일 제자양육에 단점이 없겠냐마는 근 40년 가까이 한국교회에 대표적인 양육 프로그램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다. 아직 어떤 양육 프로그램을 할까 고민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면 일대 다수가 아닌 일대일로 말씀의 매개로 삶을 나누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참고 문헌

한국어 서적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4.

최윤식, 최현식, 빅체인지 한국 교회,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1.

김도인 외, 목회트렌드 2023, 서울: 목회트렌드연구소, 2022.

온누리 일대일 양육 사역팀,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 양육자 지침서,
서울: 두란노서원, 2015.

김도일, 교육인가 신앙공동체인가?,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8.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22, 서울: 미래의 창, 2021.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23, 서울: 미래의 창, 2022.

정성진 외, 격차의 시대 격이 있는 교회와 목회, 서울: (재)기독교 선교햇불재단,
2022.

양승헌, 크리스천 믿음 하, 서울: 디모데, 2017.

양승헌, 크리스천 믿음 상, 서울: 디모데, 2017.

논문, 기타 간행물

김미희, “학원 복음화와 제자양육에 따른 기독교 교사의 자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5).

박성철, “목회사역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일대일 사역에 대한 연구-일대일 전도와
양육에 대하여”,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2010.

송정숙,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를 통한 성경적 상담의 적용”,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2006.

조병준, “전통교회의 제자양육 사역이해와 교회성장방안”,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13) 38.

김성진, 유연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목회 본질 회복을 위한 멘토링 목회 연구,”

신학과 실천, 2020.11.

조성돈, 위기에 마주한 한국교회의 전환, 생명과 말씀 V.30, 2021.

웹사이트

<https://www.nocutnews.co.kr/news/5896740>

<http://www.onnuri.org/uploads/2023/08>

<http://www.rimal23.tistory.com/1>

VITA

PERSONAL DATA

Full Name: Sunghwan Cho

Place and Date of Birth: Uiseong, South Korea, March 25, 1980

Parent`s Names: Soonhee Ryu

EDUCATIONAL INSTITUTIONS

School (Name and Address)	<u>Degree</u>	<u>Date</u>
Secondary: Kyeongbuk Hightech High School 404, Gyeongdong-ro, Andong-si,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5, 1999
Collegiate: Seoul Jangsi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145, Gyeongang-ro, Gwang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B.Th.	Feb 2, 2010
Graduate: Seoul Jangsi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145, Gyeongang-ro, Gwang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M.div.	Feb 2, 2016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Sunghwan Cho

Name typed

March 15, 2023

Date